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논문에서는 탄력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탄력성과 함께 연구되는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 탄력성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 및 탄력적 개인의 특성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Block은 개인의 탄력성을 자아통제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반면, 발달의 체계화 조망을 수용하는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은 개인의 탄력성을 특별한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면서도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하므로 과정으로서의 탄력성에 초점을 맞춘다. Block의 정의를 따르는 연구자들은 탄력적 성격유형을 갖는 개인들을 비탄력적 성격유형의 소유자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체계화 조망의 연구자들은 간혹 탄력적 개인과 비탄력적 개인의 특성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주로 가능한 보호적 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아동이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치료적 중재전략의 개발에 관심을 갖는다. 탄력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탄력성의 조작과 연구방법이 달라지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서 탄력성의 정의 문제를 시사점으로 논의하였다.

사람들 중에는 환경적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잘 대처하고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때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탄력적(resilient) 혹은 탄력성(resilience)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현재

까지 탄력성 연구는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고 탄력적 아동과 비탄력적 아동의 차이를 검토하려고 하는 연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탄력성을 시간에 걸쳐

* 본 논문은 발달심리학회 2000 추계 심포지움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리·발달정신병리와 관련된 요인의 탐색'에 발표된 것을 수정 게재한 것임.

** hsjang@hanbat.chungnam.ac.kr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고 탄력성의 발현을 돕거나 저해하는 가능한 보호적 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려는 연구로 구별될 수 있다. 이와같이 탄력성은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연구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탄력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탄력성의 발현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 및 탄력적 개인에 대한 연구를 차례로 개관하고 여기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탄력성의 정의

Block의 정의

정신분석학적 조망에서 탄력성을 정의한 Block (Block & Kremen, 1996; J. H. Block & J. Block, 1980)은 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자아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자아통제를 이룰 수 있을 때 탄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lock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이고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 융통성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하나의 연속체로 설명될 수 있다. 연속체의 한쪽 끝에 있는 개인은 자아-탄력적(ego-resilient)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반면, 연속체의 반대편 끝에 있는 개인은 자아-연약한(ego-brittle)이라고 불리워진다. Block은 자아통제도 자아탄력성과 동일하게 연속체의 한 끝에 과통제가 존재하고 다른 한쪽 끝에 저통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과통제는 충동의 과도한 억제, 만족의 지연, 행동과 정서의 억제 및 환경적 방해자로부터의 철회를 의미하는 반면, 저통제는 충동의 불충분한 조절, 만족지연의 무능력, 동기나 정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및 환경적 방해자들에 대한 취약성에 해당한다.

자아통제와의 관계에서, 자아-연약한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에 불안해 하고 융통성있는 자아통제를 이루지 못하여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저통제의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분화되지 못한 행동 레퍼토리를 나타냄으로써 성공적 적응을 이루지 못한다. 대조적으로 자아탄력적 개인들은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중간수준의 자아통제를 지니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체계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적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의 수준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Block(1971)의 모델에서, 자아탄력성과 자아통제는 시간과 맥락에 걸쳐 행동을 조직하는 역동적 개인차 변인으로서 성격을 구성하는 핵심요인들이다. Block은 청년초기와 성인초기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가 개발한 Q-분류기법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5개의 성격유형 즉, 자아탄력자, 불안정한 저통제자, 취약한 과통제자, 뒤늦은 적응자 그리고 불규칙적 외향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세 개의 유형은 청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두 개의 유형은 청년 초기부터 성인기까지 성격변화를 보인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Block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한 상이한 문화의 후속연구들 (Asendorpf & van Aken, 1999; Hart, Hoffman, Edelstein, & Keller, 1997; 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Loeber, 1996)은 세가지 성격유형 즉, 탄력적, 저통제의 그리고 과통제의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탄력적 개인의 특성을 기술함으로써 탄력성을 하나의 성격유형으로 설명한 Block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Block은 특히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과 자아탄력성이 거의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능은 사람을 이해하기, 사람을 잘 다루기, 따뜻하고 양육적인, 새로운 경험과 생각에 개방적인, 조망수용능력을 갖는, 사회적 규칙과 기준을 아는 그리고 사

회적 적응성을 갖는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발달정신병리학에서의 탄력성 정의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탄력성 연구는 위험에 처한 전집에서 보호적 요인을 연구한 Garmezy(1971; Garmezy & Streitman, 1974)의 연구로 추적될 수 있다. 그는 높은 위험에 처한 개인들이 예상외로 심리적 괴로움의 분명한 표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탄력성의 개념을 가정하였다. 계속된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탄력성을, Block의 용어와 구별하여, resilience로 명명한 Garmezy는 탄력성을 높은 위험 상태나 만성적 스트레스 혹은 그에 뒤따르는 연장된 혹은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적응(긍정적 기능)을 이룰 수 있는 능력(capacity, competence)으로 정의하였다(Garmezy, 1993; Masten, Best & Garmezy, 1990). 다시 말하면 탄력성은 역경과 성공적 적응 사이를 중재하는 요인으로서 보통 높은 위험에 처한 개인들의 표본에서 나타난 긍정적 발달결과를 측정함으로써 연구될 수 있다.

특히 발달의 체제화 조망을 수용하는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은 탄력성을 개인의 변화하는 특성으로 정의한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Reynolds, 1998; Masten & Coatsworth, 1995). 발달의 체제화 조망에 의하면, 더 이른 단계의 발달이나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한 형태의 발달이나 구조로 통합되며 발달은 환경적 자원의 맥락 내에서 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체제화 조망에서 이른 경험은 이후의 경험이 형성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선천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들은 행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취약성 변인, 보호적 변인 혹은 위험변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체제화 조망에서의 탄력성은 전생애의 맥락에서 발달적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개인-환경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특성으

로 간주된다(Egeland, Carlson & Sroufe, 1993). 다시 말하면 탄력성은 지원적 환경의 맥락내에서 선천적 요인들과 경험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특별한 능력이기보다는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탄력성 연구는 역경이나 외상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가를 역점두어 다루기 때문에 아동이 탄력적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예방적 혹은 치료적 중재전략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탄력성은 체제화 조망 내에서 단계 특이적인 발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적, 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도 인식된다(Waters & Sroufe, 1983). Egeland 등(1993)은 이른 발달과업이 해결되는 방식은 강하고 지속적인 위험기능이나 보호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아기의 애착관계 형성, 2세에서의 자율적 기능의 발달, 아동초기 동안 효율적 또래관계와 정서적 자기규제 능력의 발달 및 아동중기의 우정의 형성과 또래 집단 경험이 위험기능이나 보호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발달과업들이라는 것이다.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들

위험요인

체제화 조망에서의 탄력성 연구는 보통 위험요인이나 보호적 요인과 함께 연구된다. 여기서 위험이라는 의미는 정신병리가 발달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원하는 수준의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해당한다(장휘숙, 1998). 개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탄력성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위험지표를 선택하고 위험상황에 처한 개인을 추적하여 연구한다.

따라서 탄력성의 증거는 정신병리적 전집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Sameroff & Seifer, 1990), 역사적인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서(Long & Vaillant, 1984; Elder, 1974), 가난(Egland 등, 1993), 입양(Jackson, Born & Jacob, 1997), 시설기관(Festinger, 1983)과 비행가정(Kandel, Mednick, Kirkegaard-Sorensen, Hutchings, Knop, Rosenberg, & Schulsinger, 1988)에서의 성장, 어머니의 우울(Downey & Coyne, 1990)이나 아동학대의 경험(Egland 등, 1993) 및 부모의 갈등이나 이혼(Cherlin, Furstenberg, Chase-Lansdale, Kierman, Robins, Morrison & Teitler, 1991)과 같이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개인들에서 나타난다.

특히 높은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탄력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의 대부분은 가난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다. 그 예로서 1975년에 시작된 Egland 등(1993)의 높은 위험아동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18년간의 종단연구에서는 가난은 물론 가난과 연합된 요인들이 아동의 적응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높은 비율이 영아기에 그들의 양육자와 보잘것없는 관계를 형성하였고(Egeland & Farber, 1984) 학령전기 동안 행동문제를 나타내었으며(Erickson, Sroufe, & Egeland, 1985) 초등학교에서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학구적으로 보잘것없게 기능하였으므로(Egeland & Aberly, 1991; Pianta, Erickson, Wagner, Kreutzer & Egeland, 1990), 가난은 주요한 위험조건이었다. 특히 가난의 부정적 효과는 누적적이어서 아동의 성장과 함께 부정적 영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학대받은 아동들도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과 같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동의 전체적 기능은 점점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생후 1년경에 학대받은 아동의 50% 이상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아무도 능력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학업에서는 물론 불건강한 정서상태와 행동문제를 나타내었으며 초등학교 6학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아동들이 분명한 역기능을 나타내었다(Farber &

Egeland, 1987).

입양은 아동을 취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위험 환경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입양은 아기가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을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아니라(Maughan & Pickles, 1990), 아동이 성장하여 자신의 입양상태를 인식하게 되면 입양 아동과 양부모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초래되기 쉽기 때문이다. 입양아동 중에는 성장과 함께 사회적 관계와 우정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Hodges & Tizard, 1989). 특히 아기와 입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를 때는 국적이 동일할 때보다 더 많은 부가적 문제를 초래한다(Jackson 등, 1997).

청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동년배와의 관계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는 시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년배집단에 대한 높은 동일시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정서적 안정과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낮은 동일시는 청소년의 주변적 지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년배집단이 비행 집단일 때 동년배집단에 대한 높은 동일시는 청소년들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Stattin & Magnusson, 1990). 이와함께 동년배집단에 의해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발달의 이후단계에서 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Kupersmidt & Coie, 1990), 동년배집단의 거부는 또 다른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동년배집단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 1대 1의 데이트를 시작하고 성교에 가담하는 행위는 미래의 부적응적 발달을 예언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Jackson 등, 1997).

위험요인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누적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장휘숙, 1998). 다시 말하면 만약 아동이 단지 하나의 위험요인에 처해 있다면 장애발달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위험요인이 2개로 증가하면 장애발달의 가능성은 4배로 증가하고 위험요인이 4개로 증가하면 장애발달의 가능성은 극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가난은 어머니의 낮은 교육정도나 스트레스 많은 생활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이 장애발달을 이룰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보호적 요인

보호적 요인은 탄력성의 상관물로서 위협에 처한 아동들이 적응적 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하거나 적응적 결과와 상관이 있는 개인적 혹은 환경적 특성들에 해당한다(장휘숙, 1998). Elder(1974)의 세계대공황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IQ(소년들의 경우에만), 신체적 매력, 편안한 기질, 긍정적 어머니-아동관계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적 요인이었다.

세계대공황 동안 성장기를 보낸 성인집단을 연구한 Long과 Vaillant(1984)의 연구에서는 전후의 직업훈련과 취업기회, 경제성장 등이 보호적 기능을 하였으며 하와이의 가난한 Kauai 아동을 출생직후부터 31세까지 종단적으로 연구한 Werner와 Smith(1992)는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일차적인 보호적 요인이었고 문제있는 젊은이의 대다수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적 기능을 하는 요인은 배우자라고 밝혔다. 또한 부모의 불화나 이혼에 대한 연구들(Masten & Coatsworth, 1995; Emery & Forehand, 1994)은 부모 중 한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들은 심각한 위협조건의 영향은 아동이 그들의 부모나 대안적 양육자로부터 받는 보살핌에 의해 중재된다고 밝혔다(Pianta & Egeland, 1990; Masten, Best, & Garmezy, 1990). 여기서 영아기에 형성된 안정된 애착관계는 결정적인 보호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된 애착관계의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성이었으며 정서적으로 반응적인 양육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들은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였다(Egeland & Sroufe, 1981).

위험아동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18년간의 종단

연구를 수행한 Egeland 등(1993)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잘 기능하는 탄력적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하고 높은 IQ와 발달된 언어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 어머니의 유능한 아동과 유능하지 못한 아동(위계적 군집분석에 기초하여 집단을 구분함)을 비교연구한 Pianta, Egeland 그리고 Sroufe(1990)도 유능한 아동들은 유능하지 못한 아동들보다 IQ가 더 높고 더 발달된 언어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대도시의 9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Luthar(1991)는 IQ가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uthar에 의하면, 높은 IQ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낮을 때는 높은 학업성과 책임감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으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IQ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저조한 학업수행을 나타내고 독립적이고 책임감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8세의 자아탄력성 지수와 개인의 WAIS IQ를 비교한 결과(Block & Kremen, 1996)도 여성 표본에서는 .10 그리고 남성 표본에서는 .31의 상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탄력성과 IQ 사이에 그렇게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위험조건과 관계없이 탄력성을 연구한 결과들(Masten 등, 1990; Egeland & Erickson, 1987)은 일관성있게 지원적 양육이 중요한 보호요인이라고 지적한다. Egeland와 Erickson의 연구에서 정서적으로 반응적이지 못한 어머니들은 영아가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을 무시하고 무반응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 어머니의 아기들 중 46%가 생후 12개월에 불안하게 애착되었으며 걸음마기에는 화를 잘내고 불복종적이며 쉽게 좌절하는 아동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학령전기에 이르러서는 반항적이고 자기통제가 결여되어 있어 또래들이 좋아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높은 위험표본으로 분류된 아동들보다 더 많은 행동문제를 나타내었다. 정서적으로 반응적인 양육은 특히 소년들에서

높은 위험환경이 주는 효과를 증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응적 양육은 아동의 정서반응을 조절하고 지원적인 타인의 존재로부터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Egeland 등, 1993).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지각하며 환경을 숙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Egeland 등은 아동은 선천적 특성보다는 환경적 맥락내에서의 내적, 외적 경험과의 발달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자기에 대한 신뢰를 발달시킨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른 양육경험의 질은 특정한 위험상황에서 보호적 기능을 할 뿐아니라 더 이후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8학년과 1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의 탄력성을 연구한 Dumont와 Provost(1999)는 탄력적 청소년들은 취약한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문제집중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환경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고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도전하고 상황자체를 수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존중감을 포함하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탄력적 반응의 중심요인이라는 것은 Jackson 등(1997)의 연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취약한 청소년들이 탄력적 청소년들보다 또래와의 반사회적 혹은 불법적 활동에 유의하게 더 많이 가담하고 가족, 지역사회 및 이웃에의 참여와 같은 긍정적 사회적 활동에 더 적게 가담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은 탄력적 반응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다. Dumont와 Provost의 연구에서 개인의 자기존중감과 대처능력은 내재적인 보호적 요인인 반면, 사회적 활동은 스트레스의 지각과 우울증을 완충하는 외재적인 보호적 요인이었다.

탄력적 개인에 대한 연구

탄력성의 측정

탄력성을 성격유형으로 정의하는가 아니면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탄력성을 연구하는가에 따라 탄력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탄력성을 성격유형으로 규정하는 Block과 그 후속연구자들은 개인의 탄력성을 직접 측정하고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발달정신병리학적 접근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탄력성을 연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① 캘리포니아 아동 Q-분류법

개인의 탄력성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 아동 Q-분류법(California Child Q-set: CCQ, J. Block & J. H. Block, 1980)의 문항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CCQ를 제작한 J. Block과 J. H. Block은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CCQ 문항을 사용하여 역전된 요인분석(inverse factor analysis)을 실시하면 3개의 성격유형이 도출되고 20개의 문항이 자아탄력적 집단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 중 10개의 문항은 가장 자아탄력적인 문항을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문항은 가장 탄력적이지 못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CCQ문항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Asendorf와 van Aken(1999)의 연구, Hart 등(1997)의 연구 및 Robins 등(1996)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자아탄력성 척도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 89)도 개인의 탄력성 정도를 직접 측정한다. 이 척도는 14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상에 반응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청년후기의 대학생들에게 실시될 수 있는 검사이다. 이 척도의 알파 계수는 Block과 Kremen(1996) 연구의 18세와 23세 집단에서 모두 .76이었다. 5년간의 시간간격을 두고 평정되었을 때 ER 89 점수의 상관은 여성에서는 .51 그리고 남성에서는 .39였다. 연구자들은 탄력성이 개인의 성격특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성격이 보다 더 확립된 후인 인생후기에 이르면 ER 89의 상관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탄력적 집단의 추출

탄력적 집단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Herman-Stahl과 Petersen(1996)이 사용한 집단구분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발달정신병리학적 조망에서 탄력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연구 방법으로 개인의 우울증상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를 기초로 잘 적응된 집단, 탄력적 집단, 취약한 집단, 부적응적 집단의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한다. 잘 적응된 집단은 우울증상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에서 모두 낮은 집단, 탄력적 집단은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는 높고 우울증상에서 낮은 집단, 취약한 집단은 부정적 생활사건과 우울증상 모두에서 높은 집단, 그리고 부적응적 집단은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는 낮고 우울증상에서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Dumont와 Provost(1999)는 Herman-Stahl과 Petersen의 집단구분방식을 기초로 하여 부정적 생활사건 대신에 매일의 다툼의 빈도와 심각성을 스트레스 지표로 사용하고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잘 적응된 집단, 탄력적 집단 및 취약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집단구분방식은 취약한 집단과 잘 적응된 집단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하지만, 탄력적 집단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Dumont와 Provost 연구의 판별합수분석에서 탄력적 집단구성원의 약간은 잘 적응된 집단에도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 탄력적 집단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이 적응과 부적응 사이의 매개변인

이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집단구분에 문제가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 이와함께 Herman-Stahl과 Petersen의 방식은 내재화 장애에 해당하는 우울증상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표집편향(sampling bias)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재화 장애도 함께 고려하는 집단구분방식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집단을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된, 매일의 다툼의 빈도와 심각성은 물론 우울증상에 대한 자료가 모두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도 집단구분 방식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탄력적 개인의 특성

Block(Block, 1971; J. H. Block & J. Block, 1980)은, 앞서서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청년초기와 성인초기의 개인을 대상으로 그가 개발한 Q-분류법(California Adult Q-set: CAQ)을 사용하여 5개의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자아탄력자들은 잘 적응하였고 대인관계가 효율적이고 원만하였으나 불안정한 저통제자들은 지극히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이었다. 반면 취약한 과통제자들은 그들의 요구와 충동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위협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세상의 희생물로서 불안해하고 부적응적이었으며 정신병리의 분명한 증후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두가지 유형 중 뒤늦은 적응자들은 청년기 동안 부적응하였으나 성인기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반면, 불규칙적 외향자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Block의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Robins 등(1996)은 CCQ 문항을 사용하여 10세의 미국 청소년들을 2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연구한 결과, 자아탄력적 청소년들은 자기주장적이고, 언어적으로 표현적이며, 정력적, 품위있는, 신뢰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높은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고 불안정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으며 미성숙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이었다.

Robins 등의 연구에서 탄력적 청소년들의 성격 유형을 Big Five 요인(외향성, 동조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평가했을 때, 그들은 과통제자나 저통제자들보다 더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었다. 또한 그들은 과통제자보다는 더 외향적이었다고 저 통제자들보다는 타인에게 더 많은 호감을 주었다. 여기에 덧붙여 탄력적 청소년들은 머리가 좋고,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였으며 비행자일 가능성이 없는 동시에 정신병리의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대조적으로 과통제자들은 내재화 장애를 그리고 저통제자들은 높은 비행발생율과 함께 내재화 장애와 외재화 장애를 함께 가질 가능성이 많았다.

Robins 등의 연구결과를 아이스랜드 아동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Hart 등(1997)은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8년간의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아동과 시골아동 모두에서 Robins 등과 동일한 세 개의 성격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력적, 과통제적 그리고 저통제적으로 명명된 이 유형들은 Robins 등의 연구와 일치되게 현저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탄력적으로 명명된 집단은 주의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협조적인 사회적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정서표출을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나머지 두 개의 집단(과통제집단과 저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IQ를 지니고 있었고 학교에서 더 성공적이었으며 우정에 대한 이해정도에서도 더 앞서 있어 더 발달된 사회인지적 발달수준을 나타내었다. 대조적으로 과통제 집단은 타인에게 개방적이지 못하고 타인과 갈등관계에 있을 때 쉽게 굴복하는 철회현상을 보이는 반면, 저통제 집단은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하여 소망

을 즉시적으로 표현하며 주의집중시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아동기에 탄력적인 사람이 청년기에도 탄력적이라고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탄력적인 개인들은 다른 두 개의 집단보다 연령증가와 함께 학교에서 더 적은 주의집중문제를 나타내었고 더 높은 수준의 우정추론 능력을 획득하였으며 외재적 통제소재에서 내재적 통제소재의 발달을 이루었다. 그러나 과통제집단은 아동기에서와 동일하게 청년기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성공적으로 가담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의 불안과 공포를 보이며 아동기보다 더 낮은 자기존중감을 나타내었다. 대조적으로 저통제집단은 청년기에 이르러 타인과의 부정적, 회피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을 보임으로써 Block이 가정한 성격유형은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30년 종단연구를 수행한 Werner와 Smith(1992)의 연구에서는 탄력적 아동들은 더 좋은 지적 기술과 읽기 기술을 지니고 있었고 좋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이었고 내재적 통제소재를 지니고 있었으며 보다 더 구조화되고 규칙을 중요시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탄력적 집단을 추출하여 연구한 Herman-Stahl과 Petersen(1996)은 탄력적 청소년들은 낙관주의자이고 부모 및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능동적 대처양식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Dumont와 Provost(1999)도 탄력적 청소년들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문제집중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부모 및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ER 89를 사용하여 연구한 Block과 Kremen(1996)은 탄력적 남성과 여성들은 CAQ(California Adult Q-sort; J. Block, 1978)로 측정된 성격검사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23세의 탄력적 여성들은 사교적이고, 쾌활하였다. 그들은 삶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

고 적절한 정서성을 지니고 있으며 긴장하에 있을 때 적응적이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으며 자발적이고 감각적 경험에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어 연구자는 이 여성들을 탄력적 저통제자(resilient undercontroller)로 명명하였다. 대조적으로 낮은 ER 점수를 갖는 탄력적이지 못한 여성들은 상처입기 쉽고 과민하며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적절성 문제에 몰두해있었고 만성적인 취약성의 느낌을 갖는 것은 물론 타인과 신뢰롭고 협력적이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연구자들은 비탄력적 과통제자(unresilient overcontroller)로 이름붙였다.

한편 23세의 탄력적인 남성들은 일이나 사물에 몰입할 수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동정적이고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풍부하고 적절한 정서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과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편안하게 지각하였다. 대조적으로 낮은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은 극히 처벌적이고 적대적이었으며 인생에서 속임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반항적이고 신경과민적이며 심한 기분변화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으로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대처방식이 만성적으로 갈등적이었다.

흥미롭게도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갖는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갖는 남성들과 비교하여 독립을 중요시하고, 다소 자기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대인관계가 능숙하며 과통제의 경향이 적은 동시에 순종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탄력적 여성들은 그들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순종이나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탄력성이 여성들에게 작용하는 사회적 압력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지니고 있는 남성들은 이 유형의 여성들과 비교하여 윤리적이고 타인에게 책임감있는 행동을 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측가능성과 내적 일관성을 지

니며 사회가 제공한 한계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자아-연약한 남성들의 특성인 반사회적, 적대적, 파괴적 행동을 완화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탄력성 연구를 위한 시사점

이 논문에서 개관된 연구들을 종합하면 탄력적 개인들은, 비록 상대적 비교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높은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유형접근과 발달정신병리학적 접근 모두 탄력적 개인들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탄력성을 성공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정신병리의 발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성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아동을 정신병리나 일탈에 저항적인, 탄력적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탄력적이지 못한 아동을 위한 치료적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탄력성을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하는가 아니면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탄력성의 조작방식과 측정방식은 물론 탄력성 증진을 위한 중재전략도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가정한 Hart 등(1997)의 연구에서 아동기에 탄력적인 사람이 청년기에도 탄력적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탄력성은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 발달 단계에서 변화하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적인 성격유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Q분류방법(CCQ)을 사용한 Hart 등은 물론 행동관찰방법을 사용하여 3세의 뉴질랜드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초기까지 연구한 Caspi와 Silva(1995)도 과

통제 유형에서 탄력적 유형으로 변화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와 같이, 하나의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는 개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성격유형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ER 89를 사용하여 연구한 Block과 Kremen(1996)의 연구에서 18세부터 23세까지 5년간의 시간간격을 두고 개인의 탄력성을 측정했을 때, 여성은 .51의 상관을 그리고 남성은 .39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연구자들은 탄력성이 개인의 성격유형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성격이 보다 더 확립된 후인 인생후기에 이르면 ER 89의 상관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시간경과에 따른 점수 상관의 감소는 발달단계에 따라 개인의 탄력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에 따른 탄력성의 변화를 가정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은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탄력성을 연구한 결과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1975년부터 18년동안 연구를 계속한 Egeland 등(1993)은 한 시점에서의 평정으로 탄력적 아동을 선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난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도 특정한 영역에서는 때로 개선된 기능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 측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Egeland 등의 종단연구에 포함된 일부 아동들은 입양이나 양육적인 교사와의 만남과 같은 상황적 변화에 따라 그들의 탄력성은 많이 호전되었으며,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개인의 탄력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Cicchetti와 Garmezy(1993)를 포함하는 최근의 여러 연구자들(Kaplan, 1999; Tarter & Vanyukov, 1999)은 탄력성이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개인의 탄력성이나 취약성은 극심한 스트레스의 기간 동안은 물론 전생애 동안 발달적 변화의 시기 동안 나타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탄력적인 아동도 다른 시점에서는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 Cicchetti와 Garmezy는 탄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아동

들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탄력성의 본질을 규명할 것을 권한다.

탄력성의 변화가능성은 Lerner(1995)의 발달적 맥락주의의 가정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발달적 맥락주의에 의하면, 발달은 개인적 특성과 맥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난다(Lerner, 1995). 상호작용 결과는 대부분 개인과 맥락 사이의 일치나 조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달결과가 적응적인가 아닌가는 개인의 특성에 기인된 문제가 아니다(장휘숙, 1999 참조). 적응적, 건설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이 사회적 맥락과 일치하거나 좋은 적합을 이루어야 하며 적합을 이루는 양상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은 매 단계마다 변화하므로 성공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탄력성도 매 단계마다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들이 탄력성의 변화를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에 처한 아동들 중 결정적 영역에서 탁월한 개인들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적응 프로파일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Masten과 동료들(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 & Ramirez, 1999)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탄력성의 종단적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탄력성의 계속성을 입증하였을 뿐아니라 Werner(1995)는 30년간의 종단연구에서 처음에 탄력적으로 명명된 아동들의 대부분이 30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탄력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기와 걸음마기 동안 긍정적 적응을 나타내었던 아동들이 초등학교 연령에서도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결과(Egeland 등, 1993)는 모두 탄력성이 전생애동안 변화없이 지속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임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상반된 결과들은 탄력성의 변화가능성과 계속성 중 어느 입장이 탄력성을 정의하는 더 타당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

럽게 만든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형접근과 집단분류방법 양자를 함께 사용하여 두가지 접근방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평가된 개인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탄력성의 변화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연구자들은 탄력성을 중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보고 교육적 탄력성(Wang, Haertel, & Wahlberg, 1994), 정서적 탄력성(Kline & Short, 1991) 그리고 행동적 탄력성(Carpentieri, Mulhern, Douglas, Hanna, & Fairdough, 1993) 등을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으므로 자기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이 개인의 전체적 탄력성과 영역특정적 탄력성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장휘숙(1998). *발달정신병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Asendorpf, J. B., & van Aken, M. A. G. (1999).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personality prototypes in childhood: replicability, predictive power, and the trait-type iss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4, 815-832.
- Block, J. (1971). *Lives through time*. Berkeley, CA: Bancroft Books.
- Block, J. (1978).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Block, J. (1981). Some enduring and consequential structural of personality. In A. I. Rabin, J. Aronoff, A. M. Barclay, & R. A. Zucker (Eds.), *Further explorations in personality* (pp. 27-43). New York: Wiley.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Block, J. H. (1980). *The California Child Q-sor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349-361.
- Carpentieri, S. C., Mulhern, R. K., Douglas, S., Hanna, S., & Fairdough, J. (1993). Behavioral resiliency among children surviving brain tumors: The neuropsychological basis of disorders aff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Special issu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236-246.
- Caspi, A.,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3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 486-498.
- Cherlin, A. J., Furstenberg, F. F. Jr., Chase-Lansdale, P. L., Kierman, K. E., Robins, P. K. Morrison, D. R., & Teitler, J. O. (1991). Longitudinal studies of divorce on children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cience, 252*, 1386-1389.
- Cicchetti, D., & Garmezy, No. (1993). Prospects and promises in the study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497-502.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 No. 3,

- 343-363.
- Egeland, B., & Abery, B. (1991). A longitudinal study of high-risk children: Educational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38(3), 271-287.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Egeland, B., & Erickson, M. F. (1987). Psychologically unavailable caregiving: The effects on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M. Brassard, S. Hart, & B. Germain (Ed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pp. 110-120). New York: Pergamon Press.
- Egeland, B., & Farber, E.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3), 753-771.
- Egeland, B., & Sroufe, A. (1981). Developmental sequelae of maltreatment in infancy. In R. Rizley & D. Cicchetti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child maltreat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Elder, G. H.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mery, R. E., & Forehand, R. (1994). Parental divorce in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 and interventions* (pp. 64-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ckson, M., Sroufe, L. A., &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147-166.
- Farber, E., & Egeland, B. (1987). Abused children: Can they be invulnerable. In J. Anthony & B. Cohler (Eds.), *The invulnerable child* (pp. 253-288). New York: Guilford Press.
- Festinger, T. (1983). *No one ever asked u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arnezy, N. (1971). Vulnerability research and the issue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101-116.
- Garnezy, N.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C.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e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377-3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rnezy, N., & Streitman, S. (1974). Children at risk: The search for antecedents to schizophrenia. Part I: Conceptual models and research methods. *Schizophrenia Bulletin*, 8, 14-90.
- Hart, D., Hof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No. 2, 195-205.
- Herman-Stahl, M., & Peterse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49-665.
- Hodges, J., & Tizard, B. (1989).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of ex-institution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77-97.
- Hodges, J. & Tizard, B. (1989).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of ex-institution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77-97.

- Jackson, S., Born M., & Jacob, M. (1997). Reflections on risk and resili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0, 609-616.
- Kandel, E., Mednick, S. A., Kirkegaard-Sorensen, L., Hutchings, B., Knop, J., Rosenberg, R., & Schulsinger, F. (1988). IQ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bjects at a high risk for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224-226.
- Kaplan, H. B. (1999).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 critical review of definitions and models. In M. D. Glantz & J. R. Johnson (Eds.),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 (17-83). New York: Plenum.
- Kline, B. E., & Short, E. B. (1991). Changes in emotional resilience: Gifted adolescent boys. *Roeper Review*, 13, 184-187.
- Kupersmidt, J., & Coie, J.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s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erner, R. (1995). *America's youth in crisis*. Sage Publications, Inc.
- Long, J. V. F., & Vaillant, G. E. (1984).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XI: Escape from the undercla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341-346.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No. 3, 543-562.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5). Competence, resilience, and psychopathology. In Cicchetti, D., & Cohen, D. J.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pp. 715-752),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 Maughan, B., & Pickles, A. (1990). *Straight and devious pathway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anta, R., & Egeland, B. (1990). Life stress and parenting outcomes in a disadvantaged sample: Results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 Projec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329-336.
- Pianta, R., Egeland, B., & Sroufe, A. (1990). Maternal stress and children's development: Prediction of school outcomes and identification of protective factors. In J. E.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215-23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anta, R., Erickson, M. F., Wagner, N., Kreutzer, T., & Egeland, B. (1990). Early predictors of referral for special services: Child-based measures versus mother-child interac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XIX(2), 240-250.
- Reynolds, A. (1998). Resilience among black urban youth: Prevalence, intervention effects, and mechanisms of influ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 84-100.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6). Resilient,

-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1, 157-171.
- Sameroff, A. J., & Seifer, R. (1990). Early contributors to developmental risk.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52-6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ttin, H., & Magnusson, D. (1990). *Paths through life, Vol. 2, Pubertal maturation in female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arter, R. E., & Vanyukov, M. (1999). Re-visiting the validity of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n M. D. Glantz & J. L. Johnson, *Resiliency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s*(85-100). New York: Plenum.
- Wang, M. C., Haertel, G. D., & Wahlberg, H. J. (1994).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 cities. In M. C. Wang & E. W. Gordon (Eds.),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Challenges and prospects* (45-72). Hillsdale, NJ: Erlbaum.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erner, E. E. (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3, 81-85.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Resilience as a factor interrupting psychological disorders

Hwee Sook Ja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finition of the resilienc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measures for resilience stud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ilient person. Block defining the resiliency as one of the personality types explains the resiliency in relation of the ego-control, wherea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ists accepting organizational perspectives of development define the resilience as the personal competence or capacity changing with ages. Researchers following the Block's definition compare resilient persons with nonresilient ones, while researchers of organizational perspectives confirm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concern the development of the preventive or therapeutic intervention program for helping to become as resilient children. Finally the problem of defining the resiliency is discussed.